

국립돌리시

모현동 희망동행-소성전기공사 '우리아웃 밝은 빛 찾아주기' 행사

익산시 모현동 희망동행 협의체와 소성전기공사는 지난날 31일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롭게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찾아 '우리아웃 밝은 빛 찾아주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소성전기공사(대표 소순성)의 재능기부와 모현동 희망동행 협의체 위원들의 봉사활동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3가구의 전등, 전선을 교체해 밝은 빛을 찾아줬다.

더불어 청소를 깨끗하게 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0일까지 동사무소에 신청

군산시가 이달 30일까지 '2016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이며, 농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유기질비료는 14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100원, 1000원, 800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며, 추가로 군산시가 최대 600원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이동지킴이 실버경찰대 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대장 김용태)는 지난날 31일 사무실에서 이동인전지킴이 실버경찰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지구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인전지킴이 18명, 실버경찰대 8명이 참석하여 그간 경찰과 함께 이동인전과 관내 범죄예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심포어, 화교폭력 등 이동대상 범죄 예방 근무요령 및 경찰 협조 사항 등 이동인전 확보방안에 대해 상호 논의 하는 시간을 갖고 에로사한 등을 청취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여 노인 대상 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이리신광교회, 주거환경 봉사활동

이리신광교회가 일주일간 관내 어려운 10가정에 주거환경 봉사활동을 펼친 것

이리신광교회 봉사단들은 익산에서 어려운 가정을 추천받아 10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도배, 장판, 창틀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봉사활동을 펼쳤다

송갑식(가명, 68)씨는 "월세로 살고 있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이사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는데 신광교회에서 도배, 장판 뿐 아니라 창틀까지 해주 너무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봉사단 회원들은 "집수리를 통해 낡은 집이 깨끗하게 바뀐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불법조업 중국어선 폐기처분

군산해경, '노위고어60300' 호 이달 중 선박해체 등 폐선과정 진행 예정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물수판결을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폐기처분 된다

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불법조업 혐의로 물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 호에 대해 폐선을 조건으로 한 공개매각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박해체 등 폐선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올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선박 물수 판결을 받았으며, 9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폭력행위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이 물수 처분된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불법조업 행위만으로 물수 처분된 건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번 조치는 해경의 단속활동에도 고무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결 후에 선주 측



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물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물수 시 제법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날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4척을 단속하고 2억 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 조치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업무약정 체결

국비 10억 확보... 15억원 투입 공공서비스 지원 등 일자리 340개 창출

익산시가 고용노동부(익산지청)와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 약정 체결을 하고, 겨울철 익산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

1일 오전 시청 시청실에서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소병홍 시장의, 전혜선 고용노동부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위한 업무약정 체결식이 열렸다.

익산시는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 환경정비, 공공서비스 지원 등 54개 사업 분야에 3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한응 선생 · 호국영웅 이장원 해병대 중위 선정

전북서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에서 11월의 독립운동가에 이한응 선생과 6.25 전쟁 호국영웅에 이장원 해병대 중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한응 선생은 1874년 경기도 용인에서 군수인 이경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근대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에서 근대 학문을 익혔으며, 1894년 과거시험인 성균관 진사에 합격한 후 한성부주사에 임명됐다.

관립영어학교 교관으로 후학을 양성하던 선생은 1901년 3월 민영준이 주영령명전관공사로 임명될 때, 주영공사관 참서관으로 함께 영국으로 파견된다 선생은 영국에서 교류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으면서 한국의 사정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선생은 러시아와 일본 간 전쟁이 벌

어질 것을 예상하고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유럽의 세력균형과 연관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전쟁을 막기 위해 영국 외무부를 설득했다.

이장원 해병대 중위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 해병사관후보생 5기로 입대하여 그해 9월 소위로 임관했다.

영웅만 주변 이군의 해상봉쇄선상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북한은 이거점을 장악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습 공격을 시도했다.

적과의 치열한 교전 중 무전까지 파괴되어 아군의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으나 이장원과 그의 소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한응 선생 · 호국영웅 이장원 해병대 중위 선정



한국폴리텍 익산캠퍼스 임재학 학생 대기업 계열사 취업 성공

고학력·고스펙을 갖췄음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취업시장의 현실이다.

그 주인공은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산업설비과 특수융합직종 기능사 양성과정(1년에 재학중인 임재학(24) 학생이다.

임재학 학생은 최근 대기업 일진그룹 계열사인 일진머티리얼즈 채용에 합격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전북 익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시가총액 6,200억원 규모의 첨단소재 생산 기업이다.

임재학은 폴리텍 입학 전 현대산업개발 배관취부사로 1년 간 근무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벌과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당당하게 대기업 계열사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한편 임재학 학생이 재학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전문기출인을 양성하는 국책특수대학으로서 산업현장과 교육생들의 수요에 맞춘 전문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해 정률0과 '잡인폴리텍'의 핵심기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성료

군산농촌지도자와 군산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희망찬 군산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땀 흘렸다.

(사)한국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회장 노홍욱)와 (사)한국생활개선회군산시연합회 두 단체가 손을 맞잡고 1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2016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의 한마음대회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한 김경구 군산시의회 부의장 등 유관기관장들과 농업인단체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희망찬 군산'이라는 주제로 소통·희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신명나는 풍물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색소폰 연주와 군산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는 두드림 난타 공연 등 재능기부로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이어 개최식에서는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오순의 생활개선회군산시연합회 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김경희 농촌지도자군산시연합회 부회장이 농촌지도자연합회 표창을 수상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최근 이상기후와 농가경쟁 불안으로 농업인의 시름이 깊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농업은 미래산업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며 "그 중심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군산농업발전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법사량위원 익산지구 자연보호 함께하는 4대악 근절 캠페인 실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법무부 법사량위원 익산지구역의회는 지난날 29일 자연보호 함께하는 4대악 근절 캠페인을 급기면 소재 미특산물을 선정해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감형길 지청장 신현성 1부장감사, 양전수 2부장감사, 박준영 사무과장, 한재영 집행과장 서성광 감사, 서강원 감사, 법무부 법사량위원 익산지구역연합회 강성기 운영실장, 익산지구역의회 회원인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외 자원위원 명과 위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자유로이 담소를 나누며 정성까지 이동하면서 등산객 및 시민들을 상대로 4대 악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동참과 홍보를 진행했고, 등산로 주위의 방치된 쓰레기를 줍는 등 자연환경정화 봉사활동도 같이 실시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의회, 역량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전체의원 실무워크숍을 갖는다.

이날 워크숍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의원상호간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군산시의회가 워크숍 장소를 원주시로 선택한 것은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원주시의회를 방문해 양의회간 우호증진과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의회는 원주시와 정선군 문화·관광 시설을 탐방해 군산시 점박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사례도 돌아볼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